

故事와 불

(연재 제24회)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祈晴祭)

해방 전 어느 해 가뭄이 혹심했을 때의 일이다.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군수 주재아래 군내 116개 부락에서 일제히 기우제를 올렸다. 크고 작은 산봉우리마다 장작과 청솔가지를 집더미만큼 쌓아놓고 밤 10시를 기해 일제히 불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기우제를 올린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별이 총총하던 하늘에 구름이 엉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높은 산 위에서 한꺼번에 많은 불을 피우는 형태의 기우제는 지상의 간절한 소원을 천신에게 상달케 한다는 민속적·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험에 의한 과학적 인공 강우법이기도 했다.

기압의 변화가 적은 야간에 광역에 걸쳐 불을 사르면 차가운 대기 주변에 가열된 대기군이 형성되어 기압 차가 생기는데, 이 고저 양 기압이 맞부딪쳐 구름이 형성되고, 생솔가지의 타고난 재가 비를 결집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빗방울이 된다. 물론 강우량은 적지만 목 타는 민심만은 이로써 축일 수 있었던 것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적당한 비는 법을 지킨 대가로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저수지가 하늘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비의 수원(水源)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느님이 그 저수지를 관리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가뭄이나 홍수는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라고 여겼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재해의 원인은 크게 인재(人災)와 천재(天災, 自然災害)로 분류한다. 보통 수해는 천재(Act of God, Natural Catastrophe)인 경우가 많지만, 화재는 대부분 인재(Accident of Human Error)이다.

최근 몇 년간 중북부 지방에서 심한 물난리를 겪는 동안 사람들은 이를 천재가 아닌 인재라 말하고 싶어하였으며, 23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화성의 씨랜드 화재는 마땅히 인재를 인재라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 이상의 해석을 원하고 있다. 화재의 원인을 다시 실화(失火)와 방화(放火)로 구분한다면, 씨랜드 화재는 방화에 가까운 실화 또는 중실화(重失火)로 표현되어야 의의가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반효과(부작용)가 따르게 마련인데, 이 같은 반효과를 무시한 기술을 두고 「파행 기술」이라 말한다. 안전의 영역에서 보면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파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씨랜드 참사야말로 파행의 표본이 될 것이다.

처서(處暑)에 비가 오면 쌀독이 빈다고 했다. 기우제를 올리던 선인들은, 입추(立秋)가 지나서도 비오는 날이 계속되면 맑은 날씨를 기원하는 기청제(祈晴祭)를 드렸다. 기우제의 반효과에 상응하는 염원이 기청제인 셈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가라앉게도 한다. **FLK**